그림 속 몸은 어디에서 끝나는가

2026. 11. 04. | 윤수진 · Muse Art Chronicle 편집장

에밀 우르바넥 개인전《tales of appearance》· 2026.10.17–11.21 · 디스위켄드룸 · 수–토 12:00–19:00

그림 아래쪽부터 보자. 짙은 몸이 길게 누워 있고, 그 앞에 둥근 과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놓여 있다. 시선을 위로 올리면 입이 넓은 병의 윤곽이 나타난다. 그런데 왼쪽의 앞발처럼 보이는 부분은 그 선 밖으로 나와 있고, 오른쪽에서는 몸과 과일의 경계가 겹친다. 동물이라고 알아본 뒤에도 그림에서 눈을 떼기 어려운 건, 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에밀 우르바넥 Emil Urbanek, ever since i sometimes wake, 2026, graphite, kasein, acrylic on canvas, 100 × 125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에밀 우르바넥의 〈ever since i sometimes wake〉에서 병은 처음엔 몸을 담는 그릇으로 읽힌다. 하지만 왼쪽 윤곽을 따라가다 보면 병이 몸을 둘러싼 것인지, 몸 위로 병의 선이 지나가는 것인지 다시 보게 된다. 무엇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었다면 오히려 한 번 보고 지나쳤을지 모른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그림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르바넥은 캔버스에 미세한 흑연 가루를 흩뿌리고,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색을 겹쳐 앞서 남긴 흔적을 드러내거나 덮는다. 이 그림에서도 몸의 어두운 부분은 단단한 외곽선으로 닫혀 있지 않다. 잠들어 있는 듯한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 몸을 어디까지 한 덩어리로 볼지는 시선을 옮길 때마다 달라진다.

한 걸음 가까이 한 걸음 뒤로

MAC은 이유진 큐레이터에게 관객이 어떤 장면을 오래 바라보길 바랐는지 물었다. 이유진은 한 형상이 다른 형상의 일부처럼 보이는 지점을 눈여겨봐 달라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면 흑연 자국과 겹친 색층이 드러나고, 물러서면 그 흔적들이 다시 하나의 장면으로 모이기 때문에 작품을 선정하고 배치할 때 두 거리에서 보는 시간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점의 그림을 번갈아 보면

〈still two〉에서는 화면 중앙의 검은 두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위를 보면 꼭지처럼 솟은 두 형상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받침 달린 접시 같은 모양이 이어진다. 두 형상을 배처럼 보이는 과일로 읽을 수 있지만, 위쪽은 배경에 스며들 듯 희미하고 아래쪽만 유난히 짙다. 그 아래 넓게 번진 타원은 받침의 그림자처럼 보이다가도, 오래 보면 접시 위 타원과 닮은 또 하나의 면처럼 보인다.



에밀 우르바넥 Emil Urbanek, still two, 2025, graphite, ink, acrylic on canvas, 60 × 7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ever since i sometimes wake〉에서는 병의 선을 따라가다 몸이 그 선을 넘는 곳에서 멈추게 된다. 〈still two〉에서는 반대로 짙은 자국에서 시작해 옅은 과일의 윤곽을 뒤늦게 찾아보게 된다. 하나는 이미 알아본 몸의 경계를 다시 묻게 하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 있었는지 조금 늦게 알아차리게 한다.

작가 에밀 우르바넥

에밀 우르바넥은 2000년생으로, 베를린을 기반으로 작업하며 2019년부터 베를린 예술대학교(UdK)에서 공부해 왔다. 2026년 아트 뒤셀도르프와 KPM 재단이 마련한 첫 작가 레지던시의 참여자로 선정됐다. 그곳에서 만든 그릇과 컵을 《Never Empty》라는 이름으로 베를린 아트위크에서 선보였다.

아트 뒤셀도르프 인터뷰에서 우르바넥은 그릇의 안쪽을 두고, 그려진 과일과 실제 과일이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시의 병이나 접시가 그 도자기 작업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두 작업을 함께 떠올리면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사물인 동시에, 그 안의 것을 다르게 보게 하는 틀이기도 하다.

갤러리 디스위켄드룸

디스위켄드룸은 2015년 서울에서 문을 연 동시대 미술 갤러리다. 한남동 공간에서 국내외 작가를 소개하고, 교토·베를린·런던 등에서도 전시를 이어왔다. 이번 개인전은 해외에서 발견한 작가를 서울에 한 차례 소개한 뒤, 관객의 반응을 살피며 다시 초대한 사례다.

디스위켄드룸이 MAC에 보내온 답변에 따르면, 갤러리는 2023년 베를린 아트위크에서 우르바넥의 작품을 처음 직접 봤다. 2025년 서울 단체전에서 작업을 소개했을 때 관객들이 저마다 그림의 표면을 세심히 살폈고, 그 반응이 작가의 회화를 더 충분히 소개하는 이번 개인전으로 이어졌다.



《tales of appearance》, 2026, installation view, ThisWeekendRoo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MAC의 질문

두 그림을 번갈아 볼 때, 무엇을 먼저 알아봤나요? 다시 보았을 때 그 윤곽은 처음과 같았나요?

전시 안내

전시명: 에밀 우르바넥 개인전《tales of appearance》

기간: 2026.10.17-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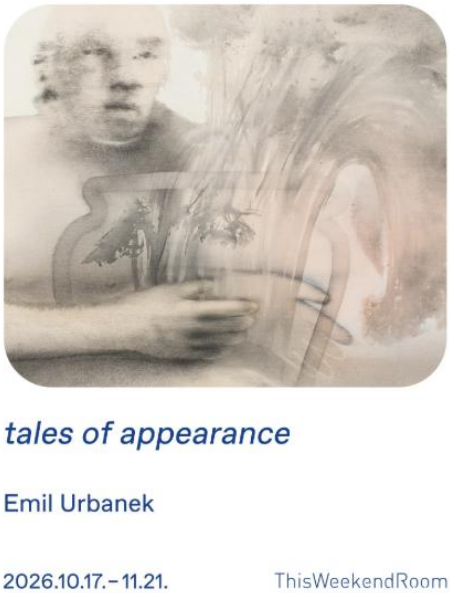
장소: 디스위켄드룸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42길 30

관람 시간: 수-토 12:00-19:00

휴관: 일-화 및 공휴일

관람료: 무료

문의: 070-8868-9120 · info@thisweekendroom.com



에밀 우르바넥 개인전《tales of appearance》공식 포스터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자료와 이미지를 보내주신 디스위켄드룸 김리나 프로젝트 매니저님과 질문에 답해 주신 이유진 큐레이터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Muse Art Chronicle

(https://museartchronicle.com/emil-urbanek-tales-of-appearance-2026)